

# 코로나19·백신 예방원리 ‘그것이 궁금하다’

공군, 서울의대 명예교수 초청  
장병·군무원 대상 온택트 강연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코로나19와 백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는 학습의 장이 열렸다.

공군은 25일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 유근영 박사를 온라인으로 초청해 장병과 군무원을 대상으로 ‘2021-2차 온택트 하늘사랑 아카데미’를 열었다고 밝혔다.

‘코로나19와 군의 대응’을 주제로 열린 이번 강연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장병과 군무원들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백신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화상회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장병과 군무원들은 공군 인트라넷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송출되는 강연 영상을 시청했다.

유 교수는 강의를 통해 감염병 대유행의 역사, 코로나19의 원인과 특징을 분석하고, 군의 방역대책을 진단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백신의 예방원리와 접종 필요성을 소개하고, 코로나19 이후 사회의 변화를 전망했다. 유 교수는 강연에서 “지난 1년 동안



25일 정상화 공군참모차장 등 공군 주요 직위자들이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 유근영 박사를 초청, ‘코로나19와 군의 대응’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듣고 있다. 공군 제공

코로나19로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아직도 감염병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감염병에 취약한 군의 근무여건상 코로나19에 대한 올바른 정

보를 바탕으로 슬기롭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의를 들은 공군본부 정책실 류형춘 소령은 “이번 강연을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

도 막연히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정확하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조아미 기자

## 실전 같은 훈련... 흔들림 없는 대공방어태세

공군38전대, 단거리 방공무기 전개  
비상상황 전술조치 능력 향상 중점

공군38전투비행전대는 24일 단거리 방공무기 ‘신궁’의 주진지 전개 훈련을 진행해 운용요원들의 대공방어태세를 점검하고 전투 수행 능력 극대화를 도모했다.

훈련은 군사경찰대대 휴대용유도탄소대 작전 요원들의 전술조치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펼쳐졌다. 작전 요원들은 가상의 적기 침투 상황 발령과 함께 훈련이 시작되자 신속하게 방공무기 이동, 진지 전개, 작전 준비, 초동조치, 모의 교전 등을 이어갔으며

이내 가상 항적을 모두 격추했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초동조치부터 모의 교전까지 전 과정을 실제 상황 조치와 동일하게 진행하며 작전 요원들의 실전 능력을 높였다. 또 대공상황실 요원들의 통제능력 향상을 위한 비정상 상황 부여 훈련을 병행해 종합적인 훈련이 되도록 했다.

이날 훈련을 총괄한 흥범기(중령) 기지대 대장은 “훈련을 통해 작전 요원들의 실전 대응 능력 향상은 물론 통제 인원의 상황 파악 능력 및 비정상 상황 대처 능력을 숙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실전적 교육·훈련을 계속해 최상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서현우 기자



공군38전투비행전대 휴대용유도탄소대 장병들이 24일 단거리 방공무기(신궁) 주진지 전개훈련을 하며 탄을 이동하고 있다. 사진 제공=유영민 상사

## 삶의 질이 ‘쑹~’ 전투력도 ‘쑹~’

공군3훈비, 새봄맞이 매트리스 청소  
4주간 살균·피톤치드 살포 등 소독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생과 건강에 관한 대중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휴식과 재충전을 위해 하루 3분의 1 이상의 시간을 보내는 침대는 관리가 부실하면 습기와 각질로 인한 곰팡이, 집먼지진드기 등으로 피부병·알레르기·천식 등 다양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공군3훈련비행단(3훈비)은 지난 22일부터 4주간 병사 생활관 침대 매트리스를 대상으로 자외선(UV) 살균, 습기 제거, 천연피톤치드 살포 등 소독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평소 부대는 정기적으로 이불·모포·매트

리스 커버 등을 세탁하고 1시간 이상 일광소독하고 있다. 하지만 매트리스의 경우 부피 등으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위생 사각지대의 매트리스 소독을 통해 실질적인 방역이 될 수 있도록 부대는 최근 방역전문업체와 방역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상의했다. 그 결과 정기적으로 진행하던 생활관 방역 횟수를 조정하고, 천연 피톤치드 살포 등의 매트리스 소독계획을 추가했다. 피톤치드는 삼림욕 효과에서 나타나는 심리 안정, 면역력 증진, 항균·살균 등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병복(중령) 작전지원과장은 “숙면은 개인 건강뿐만 아니라 건강한 병영 생활의 필수요소”라며 “장병들이 군 복무 기간 속 면하고 건강한 병영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방역전문업체 직원이 공군3훈련비행단 생활관 매트리스에 대해 자외선 살균, 먼지 제거, 천연피톤치드 살포 등의 소독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제공=임지훈 일병

한편, 부대는 매트리스 소독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 후 학생조종사 숙소, 독신자 숙소 등 기지 내 숙소를 대상으로 숙소관리비

를 활용해 소독하는 것을 검토, 진행할 계획이다.

조아미 기자